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3

2021 March
Vol.538

봄날처럼 부드러운
손길과 마음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Contents

2021 March
Vol.538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오다



COVER STORY

교정공무원의 섬세한 손길은 수용자를 변화시키며 우리 사회를 따뜻한 빛으로 채웁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손길 덕분에 교정행정의 미래는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ZOOM IN 청주여자교도소	04
생각의 방향 마음이 가득 담긴 손길은 시든 화초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10
지금, 이 사람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만나다	12
별별 알고리즘 수용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교도관의 따뜻한 마음	16



부캐를 부탁해 붓끝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획을 긋다	18
선배에게 듣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장점으로 만드세요	22
교정인 원픽 봄날의 취향저격템	26
힐링 메신저 세계유산, 삶의 골목이 공존하다 청주	30
지구 초대석 '재활용 가면'을 쓴 쓰레기는?	34
물음의 소통 직장인 절반 이상, 먼 출퇴근 거리에 스트레스받아	36



관계 반창고 자신을 바꾸면서까지 사람을 만나야 할까?	38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화장품 재활용 편	40
머니 레시피 매번 배신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42
인문학 살롱 영혼을 울리는 맑은 영화, 픽사의 <소울>	44
오늘의 건강 세상을 보는 창을 맑게, '눈' 건강 이야기	46



대나무숲 일기 1 나의 직업 교도관 & 강화도 평화 전망대	48
대나무숲 일기 2 어머니,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해요	50
교정 리포트 주거지원 대상 출소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①	52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3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3월호 Vol.538
www.corrections.go.kr

Facebook: www.facebook.com/mojcor
Naver Blog: blog.naver.com/mojcor
YouTube: www.youtube.com/교도소24시
Kakao Story: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수용자의 변화를 이끄는 청주여자교도소



국내 최초의 여성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성 수용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성 교정공무원들의 섬세한 손길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근로 기술 습득으로 사회 적응을 돕는 교도작업

청주여자교도소는 총 7개 공장에서 도자기 전사지 부착, 봉제, 자동차 부품 조립 등 수용자의 교도작업을 지도합니다. 직원들은 교도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를 교육하는 한편 작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전문 심리치료센터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아동 학대, 성폭력, 마약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리치료를 통해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춥니다.



직원과 수용자의 가족까지 품어 준 따뜻한 공간 조성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직원 자녀 보육 시설인 '햇살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고민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직원들은 출근 시 자녀를 이곳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여자교도소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수용자 자녀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수용자의 자녀는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진 포근한 공간에서 엄마를 만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마음이 가득 담긴 손길은 시든 화초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작은 정원 같습니다. 안방과 거실, 부엌에서 베란다까지 집 안 구석 구석 꽃과 나무가 가득합니다. 거실 창가에는 사람 키만 한 화초도 여럿 있는데 가끔 집에 들르는 딸은 말하곤 합니다. “꼭 열대우림 정글 같다. 올 때마다 한 뺨씩은 자라는 거 같아.” 그녀는 딸에게 새로 핀 꽃들을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화초만 보면 싱글벙글 웃음 가득, 그렇게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초를 기르기 시작한 건 의무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녀의 남편은 식물 가꾸는 걸 좋아했습니다. 까다롭다는 난도 몇 가지나 길렀고, 꽃 보기가 어렵다는 화초도 남편의 손길 아래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했습니다. 행운 목이 하얀 꽃을 피웠을 때 그녀를 불러 자랑하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건 그가 가꾸던 엄청난 수의 화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식물을 기르는 데 영 취미가 없었습니다. 딱히 화초를 좋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 남편이 하던 모든 일을 그녀가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이 나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겠어? 물 듬뿍 주고 햇볕 쬐어 주고 그러면 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초 기르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꽃과 나무가 하나둘 시들시들하더니 몇 달이 지났을 때는 절반 이상이 죽어 버렸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물을 주고 좋다는 영양제까지 챙겨 줬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온 지인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된다, 종종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쏘여 줘야 한다, 지지대를 잘 세워 줘야 한다,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게 살펴야 한다 등등. 그녀는 더 신경을 써서 화초를 돌렸습니다. 화분들의 위치도 바꿔 주고, 흙도 갈아 주고, 물 주는 시간도 바꿔 봤죠.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요령은 조금 늘었지만 아직 그녀에겐 빠진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기르는 꽃과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 한 번 줄 때도 싫은 숙제 끝내듯이 급하게 해치우고 있었죠. 식물도 살아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알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마음을 다해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아닌지.

애는 썼지만 1년이 지나자 살아남은 화초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잘 키워 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죠. 그제야 그녀는 남아 있는 몇 개라도 죽지 않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물 많이 먹고 쭉쭉 자라렴. 내년엔 예쁜 꽃도 피워 주렴.” 시들시들하던 화초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을 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 주었죠. 그렇게 매일 조금씩 그녀는 식물들과 가까워졌고 조금씩 식물을 돌보는 일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랬듯 그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초의 안부를 살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을 어루만져 주고 말을 걸어 주고 웃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식물들은 더는 시들지 않고 점점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기르던 꽃나무에서 처음으로 꽃이 피었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듯 마음이 몽글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주자 꽃과 나무는 그녀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 아래에서 잘 자란 화초들은 그녀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제 그녀의 집은 남편이 있을 때만큼이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식물을 특별히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린 핑거스(green fingers)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꼭 식물의 요정 같습니다. 손이 닿기만 하면 시들어 가던 식물도 생기를 되찾고, 꽃도 활짝 피어납니다. 물론 그들은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튼튼하게 자라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 화초를 돌보는 것입니다. 작은 싹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따뜻한 햇볕과 바람, 적당한 물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과 정성입니다. 어디 식물뿐일까요? 세상 많은 것이 우리가 손길을 주는 만큼 자랍니다. 일도 사랑도 사람도. 이 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손길 아래에서 푸른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게 될까요?



세상 많은 것들은
우리가 손길을 주는 만큼
자랍니다.
일도 사랑도 사람도.
이 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손길 아래에서
푸른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게 될까요?

Love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만나다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지수정

캘리그래피가 현대인들의 취미로 각광받고 있다. 치열한 디지털 시대에 한 획 한 획 정성을 들여 글씨를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힐링과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그래피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지수정 작가를 만나 보았다.



서예에서 캘리그래피로

지수정 작가는 캘리그래피 경력만 10년이 넘는 아티스트다. 그런데 그가 붓과 함께한 시간은 더욱 더 깊다. 초등학교 때 서예가인 고모의 영향으로 처음 붓을 잡았고 대학에서 서예학과를 전공했으니 ‘붓글씨’에 관한 한 엄청난 이력과 내공을 가진 인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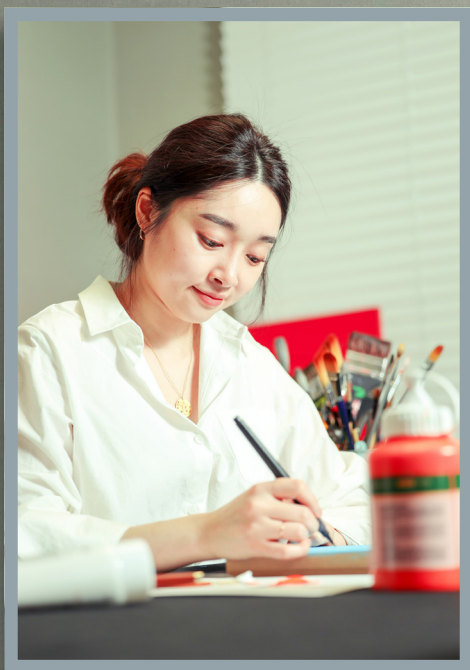
“캘리그래피를 처음 접한 건 대학 시절 교수님께서 정규 과목이 아니었음에도 캘리그래피 수업을 해 주셨을 때였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교하고 정성을 다해 쓰는 틀 안에서 10년을 공부해 왔던 제게 캘리그래피가 주는 자유로움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안의 자유분방함이 캘리그래피를 만나면서 뻗어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한 지수정 작가는 미국으로 여학연수를 갔다가 그곳에서 캘리그래피를 다시 만났다. 결국 돌아와서 캘리그래피의 대가 이상현 선생의 제자로 본격적인 입문을 했다.

캘리그래피 아티스트로서 지수정 작가의 삶은 매우 분주하다. 자신의 스튜디오 ‘힐링캘리그래피’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 SK, DIOR, TOM FORD 등 여러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전시, 굿즈 제작,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책 출간, 광고·방송 타이틀 캘리그래피, 강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캘리그래피 작가가 있지만 유독 많은 사람이 지수정 아티스트를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저는 작품에 수채화를 함께 담습니다. 글씨만 읽는 것보다 더 다양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만든 문구를 쓰고 작품 안에 ‘Art’를 담으면서 여러 가지 재료도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어떤 작품은 ‘이게 캘리그래피야?’ 할 정도로 멀리 나간 창의성을 보여 드리기도 하지요.”

글씨라는 소재는 같지만 표현 방식의 경계 없는 다양성으로 지수정만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내 안의 밝음

캘리그래피가 가진 힘은 대단히 크다. 키보드나 볼펜이 아닌, 붓을 이용해 글씨를 쓰되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색깔을 담아내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선사하는 것이다.

“제 스튜디오가 상암동에 자리 잡고 있는 덕분에 방송국 직원들이 수강생인 경우가 많아요. 밤샘 작업과 야근이 일상다반사인 그들에게 캘리그래피는 일종의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붓으로 계속 선을 긋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없어지니까요. 온전히 자신의 글씨에만 집중하니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세상, 잠시 여유가 생기면 넷플릭스 시리즈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지금 시대에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니, 캘리그래피의 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수정 작가가 교정공무원에게 캘리그래피를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교정공무원분들께서는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스트레스가 많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낮은 도구인 붓을 잡고 선 하나, 획 하나에 정성을 들이다 보면 힘든 자신 안에 또 다른 ‘긍정적이고 소중하며 밝은 나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정 작가는 캘리그래피를 시작할 때 특별한 재능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서예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붓, 먹물, 접시(버루 대신), 화선지, 서진(종이를 누르는 도구), 모포 등을 갖추고 붓펜으로 시작한다면 A4 종지와 자신에게 잘 맞는 붓펜만 있으면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붓펜 중에서는 붓과 가장 흡사한 쿠레타케 붓펜을 추천한다고 살짝 귀뜸도 해 준다.

“강사에게 배운다면 한 분의 강사에게 꾸준히 배우시는 게 좋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붓펜은 펜처럼 잡고 쓰시면 되는데 넓혀 쓰면 굵은 선이 나오고 세워서 쓰면 얇게 써져요. 제가 쓴 <지수정의 힐링 캘리그래피>에도 캘리그래피 수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보고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의 전체적인 균형, 글자 간의 짜임새는 작품을 쓸 때 꼭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수정 작가의 팁도 기억해 두자.



전국의 교정공무원분들을 응원합니다

“교도관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응원의 문구와 그림이 웬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 준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 지수정 작가가 전국의 교정공무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품을 내놓았다. 눈부신 하늘 같은 파란색 바탕에 붉고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사랑감을 갖고 살아가는 당신, 응원해요”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적힌 작품이다.

“처음에는 ‘소중한 당신, 안아 줄게요’라고 구상했었는데 그보다는 수고하시는 교정공무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교정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응원의 문구와 그림이 웬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 준다.

캘리그래피 아티스트로서 지수정 작가의 목표는 하나다.

“모든 해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작품은 ‘힐링’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이겠지만 그 작품을 100명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100개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생각에 공감하는 아티스트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캘리그래피의 본질은 서예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지수정 작가. 기본기가 없다면 글씨도 흉내 내어 그리는 그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가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한다.

“언제나 서예의 기본기를 지켜 가면서 써요. 저의 감정, 감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지켜야 하는 중심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죠.”

기본과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 이는 흔들리지 않고 제 사명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붓을 들어 가벼이, 묵직하게, 얇게, 굵게 글을 써 내려가는 그의 손끝에 교정공무원을 향한 고마움과 격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가득 담겨 있다.



수용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교도관의 따뜻한 마음

위로를
건네는
손길

이야기를
들어 주는
손길

기꺼이
도움을 주는
손길

새 미래를
안내하는
손길

용기를
불어넣는
손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교정공무원의 섬세하고 따스한 손길도 수용자가 사회 복귀 의지를 다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새 삶의 의지를 심어 주는 교정공무원들 덕분에 수용자들은 변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교도작업을 하며 근로 정신을 함양하는 수용자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안내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 새싹이 얼굴을 내밀어 햇빛과 조우하듯, 수용자도 그 무엇보다 환한 새 삶을 개척할 것입니다. 새싹이 흙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손길을 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봄의 계절, 교정 시설에도 작은 변화가 피어났으면 합니다.



일상을 펼치다
● 부캐를 부탁해
글 양기희 사진 이정도

붓끝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획을 긋다

의정부교도소 교감 오대근

‘꾸준히 하면 잘하게 된다’는
가설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의정부교도소 오대근 교감 역시
그 믿음 하나로 8년여간 우직하게
서예를 배워 왔다.
그리고 서예 하는 교도관이라는
부캐를 만들어 좋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임하리라 다짐한다.

※ 3월호 ‘부캐를 부탁해’ 코너는
다른 교육생이 없는 서실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기 계발하는 동료들 보며 꺼낸 ‘서예’의 꿈,
이제는 당당한 부캐로 보여 주다

생각이나 바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생각만 하고 실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각종 조언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바빠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상 시도해 보려니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등등 저마다 핑곗거리도 많다. 의정부교도소 오대근 교감도 마음속에 품은 일을 오랫동안 실천하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신혼 시절이던 1996년에 품게 된 ‘서예를 배우고 싶다’는 바람은 2013년 10월에서야 이루어졌다. “2013년에 동료들이 음악 동호회에서 악기를 배우고 밴드 활동을 하면서 자기 계발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오로지 교도관으로서 수용 관리에만 집중해 왔는데 ‘나는 무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죠.”

그렇게 오대근 교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서예의 꿈’을 꺼냈다. 스승님을 모시고 서예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서실’을 검색해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인연이 닿은 한국서예협회의 월봉 박서운 선생님 밑에서 8년여간 꾸준히 서예를 배우고 있다. 월봉 박서운 선생님은 오대근 교감을 가리켜 “수제자이자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찬한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서실을 방문해 배우고 또 배운 오대근 교감은 멋진 서예 작품으로 한국서예협회 서울서예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몇 개월간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부캐를 부탁해’ 참여는 서예를 향한 오대근 교감의 꿈과 애정을 한층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실에 와서 오랜만에 붓을 쥐어 보니 감격스럽기도 했을 터. 이 기분 좋은 순간에 월간 <교정>이 오대근 교감을 위해 선물한 붓 4종과 치용떡, 화선지가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 오대근 교감은 “뜻밖의 선물에 감동을 받았다. 이 선물이 더욱 열심히 서예 공부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겸손을 잃지 않으며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옛말의 뜻을 마음에 되새기며 붓을 잡다**

“평소 붓글씨를 잘 써 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다”는 오대근 교감은 붓글씨를 보면 절로 마음이 설레었다고. 그런 로망과 설렘을 간직한 오대근 교감의 부캐 이름은 송진 냄새가 나는 먹의 이름을 따 ‘처용’이라 지었다. 오대근 교감은 테이블 위에 화선지를 가지런히 펼친 다음 붓을 든다. “오늘 보여 드릴 서예는 적선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복이 있다는 뜻의 ‘적선지가필유여경’과 모든 일을 관대하게 처리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만사종관 기복자후’입니다. 서예는 옛말의 뜻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지요.”

오대근 교감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서예를 배웠음에도 처음 가진 겸손한 자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손놀림으로 한 획, 한 획 긋는 그의 모습은 조심스러웠다. 선부르지 않게, 글자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미리 연습해 둔 서예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순서를 익히기도 한다. 한 자를 완성할 때마다 벼루에 붓을 문지르며 붓 모양을 다듬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는 ‘문진’을 들어 화선지를 책상 뒤로 넘긴다. 오대근 교감은 “바른 자세로 글자를 쓰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진지함이 오롯이 담긴 글자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오대근 교감. 긴장한 탓에 실수했다며 겸손함을 보이기도 한다.

오대근 교감은 서실에 걸린 자신의 서울서예대전 특선 작품과 이번에 완성한 작품 하나인 ‘적선지가필유여경’을 나란히 놓고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두 작품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하다.

**서예로 깨닫게 된 측은지심과 따뜻함은
교도관으로서 수용자를 변화시키는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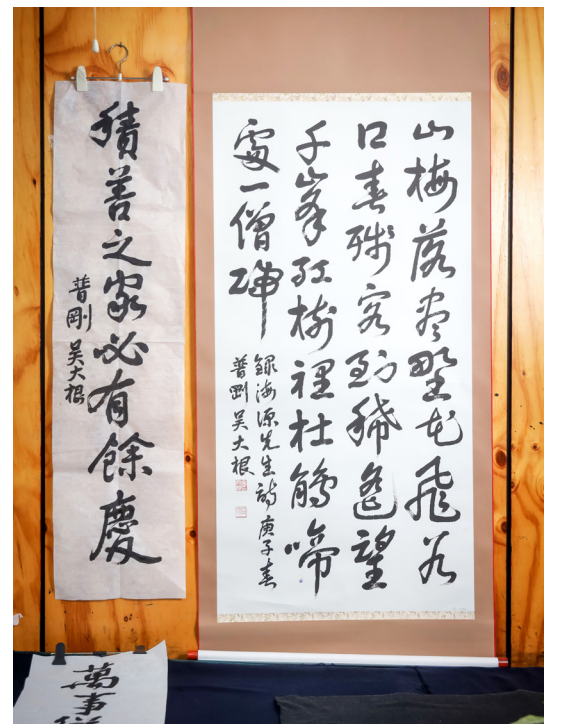
박서운 선생님은 오대근 교감이 서예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침착해지고 편안해졌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자 오대근 교감도 운을 댈다. “과거에 보안과 조사실, 기동대, 조사정별수용동 등에서 근무하며 굉장히 날카롭고 엄격하게 수용자를 대했습니다. 처벌 위주의 수용 관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박서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옛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측은지심과 따뜻함으로 수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근 교감은 수용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더니 수용자의 변화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수용자에게 가닿은 것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현재 오대근 교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 요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가 대원들에게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갔더니, 이들도 생활관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업무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오대근 교감은 서예 외에 검도와 자전거, 골프, 축구, 등산 등의 운동도 즐겨 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 가운데 서예로 ‘부캐를 부탁해’에 참여한 이유는 서예를 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서운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서예는 일어서서 공부하는 학문이자 내면의 인(仁)을 단단히 기르는, 체력이 요구되는 예술’이다. 여러 운동을 접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자기 계발을 하며 자부심도 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대근 교감에게 서예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교정공무원으로서 저의 본분을 잃지 않으며 서예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 서예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서체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만의 서체를 완성한다는 포부와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씨를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힘 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오대근 교감. 서예를 통해 얻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수용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그는 분명 ‘좋은 교도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장점으로 만드세요



김영희(청주여자교도소 보안과 교감)
시간과 경험을 축적한 선배의 한마디는
종잡을 수 없는 미래에 길을 내고, 조금은
막막했던 현실의 해상도를 높여 주기도
한다. 29년 동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선배, 김영희 교감. 그의 이야기는
후배들의 일상에 적재적소의 팀이 되어
튼튼한 기립근 역할을 해 줄 것이다.



Q. 자기소개 먼저
해 주세요.

청주여자교도소 보안과 교감 김영희입니다. 1992년 2월 첫 발령지
였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안
과 내 운영 지원 및 의료동 팀장으로서 취사, 세탁, 원예, 시설 보수,
청소 등의 업무 지원, 그리고 환자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의료동 관
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Q. 보안과의 업무 특성이
궁금합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교정기관에서
인적·물적 구성의 규모가 가장 큼니다. 교정공무원 중에서도 수용자
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부딪치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부서
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정공무원이 보
안과 소속으로, 하루 24시간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각종 처우를
비롯해 출정 및 이송 지원, 조사, 고충 처리, 수용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수용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올바른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예전에는 무기수 등 장기수 중에서 글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
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교정기관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교재와
공책을 지원했는데요. 이후 빼뺨뺨한 글씨지만 가족들과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던 기억이 흐릿하게 남
아 있습니다. 물론 업무 특성상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겪었죠. 수용팀
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한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좀처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그 모습
을 지켜보는 저를 포함한 동료들까지 사망감과 사기가 떨어졌었는
데요.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 예방에 좀 더 최
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피해를 입은 직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힘이 실렸죠.

Q.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자살 등의 사건·사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체력뿐 아니라 마음이 튼튼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한 교감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수의 수용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수용자 간 싸움이나 폭행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요. 이런 현장을 목격한 교정공무원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 급기야 그만두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회의감에 빠지지만, 오랜 경험을 들춰 보았을 때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등산과 영화 감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조차 내는 게 어려울 때는 명상과 기체조로 평정심을 찾으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Q. 후배 교정공무원들이 참고할 만한 업무 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다 갖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가령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달변가가 아니라서 수용자 상담을 할 때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덕분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처음의 분노나 적대감이 조금씩 열리는 수용자의 변화를 자주 봅니다.

29년 동안 여자 교도소에서 일해 온 만큼 여성 수용자를 대하는 팁을 전하자면, 기본적으로 여성 수용자들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모성애가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들과 상담할 때는 지시형이 아닌 부드러운 말투와 권유형 언어를 사용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쌓아 두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접목 가능한 상담과 심리학 등을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중독심리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죠.



Q. 선배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전해 주세요.

초임 때 교정공무원의 주 업무는 현장(수용동) 근무라며, 현장을 피하기보다 즐기라는 조언을 해 준 선배가 있었어요.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힘든 것도 많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알려 주었어요. 선배는 말뿐만 아니라 자살, 폭행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사례별로 정리한 내용을 전해 주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Q. 후배 교정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합심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선후배, 동료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 속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교정공무원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교정공무원으로 살아온 선배로서 모든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조직과 복지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휴일에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과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추억을 쌓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해 보고 싶습니다.

〰〰
선후배, 동료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 속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로 지수는 낮추고 미모 지수는 높여 줄

봄날의 취향저격템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 교도소로, 직원 또한 전체 230명 중 190명이 여성이다. 월간 <교정>은 선물 품목을 고민하면서 이를 중요한 힌트로 삼았다. 바야흐로 봄의 길목, 청주여자교도소에 건넨 선물은 '봄, 여성, 교정시설', 이 3가지 단어 사이에서 온갖 연산을 대입한 끝에 얻은 결괏값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용 관리로 팽팽한 긴장의 나날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담은 위로와 환기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가는 요맘때는 유독 피곤함을 호소하게 된다. 겨우내 경직된 몸이 이완되면서 나른함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직업 특성상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교정공무원에게는 몸과 마음을 더욱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다.

월간 <교정>의 선물은 때를 알고 내리는 비처럼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에게 위로와 환기가 절실한 시점에 찾아갔다. 그간의 노고가 남달랐던 만큼 피로 해소용 물품은 월간 <교정>과 총무과의 선물 리스트에 일찌감치 올랐다. 여기에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써왔던 교정공무원들이 잠깐씩이나마 오롯이 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힐링템'을 추가했다. 곧 완연해질 봄날, 미모를 가리는 마스크의 아쉬움을 헤어 스타일링으로 마음껏 표현해 줄 배려와 센스를 담은 선물도 빼놓지 않았다.

'교정인 원픽' 코너 덕분에 부서별 직원들의 고충을 두루 헤아려 보고, 그에 맞는 선물을 공들여 고르는 시간이 설렘이었다는 총무과 고혜미 교위는 "하나하나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직원들의 반응이 기대된다. 모쪼록 유용하게 사용해 조금이라도 피로를 덜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바람에 응답하듯 시냇물로 '언박싱'과 함께 공개된 선물 주위로 직원들의 환호와 윤택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선물과 함께 배달된 봄날을 담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위로는 덤. 마침 이날의 기온은 올 들어 봄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스타일과 텐션을 동시에 UP '헤어 스타일링 기구'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성 직원이 월등히 많고, 그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인 3년 차 미만이 40% 가까이 된다. 일도 소중하지만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마스크에 갇힌 코로나 시대는 가혹하기만 하다. 더욱이 업무 강도가 높고 바쁘게 돌아가는 교정시설에 몸담다 보면 스타일은커녕 자신감마저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 이로 말미암은 고충은 '교정인 원픽' 물품 선정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합성처럼 터져 나왔다. 압도적으로 '헤어 스타일링 기구'를 원했던 것. 보안과 권효선 교사는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을 헤어 스타일링으로 커버하고 싶다"며 헤어 스타일링 기구를 '픽'했음을 드러냈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샤워실 옆에 직원 미용실이 꾸려져 있다. 그런데 드라이어와 고데만 구비돼 있어 신속하게 풍성한 컬의 스타일링을 표현하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인싸템'으로 불리는 헤어 스타일링 기구가 도착했으니, 이보다 반가운 선물이 또 있을까. 헤어 스타일링 기구를 보자마자 표정이 환해진 분류심사과 이수진 교사는 "평소 관심 있던 기구라 보는 순간 열른 써 보고 싶단 생각부터 들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은 쉬는 시간에, 약속이 있는 날은 퇴근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총무과 유지의 교사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일 신경이 쓰이는데, 헤어 스타일링 기구 덕분에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용실 가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운 요즘, 스트레스를 털어 내고 기분 전환에 자신감까지 확실하게 세팅해 줄 헤어 스타일링 기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이후로도 한참 이어졌다.



피로가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험 '손 마사지기'

엄지와 검지로 손톱 양옆을 꼭꼭 누르면 목의 긴장이 풀리면서 뒷목이 편안해지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뒤로 젖히면 모세혈관이 자극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인체의 경혈이 모여 있는 손은 간단한 마사지만으로 손은 물론이고 몸 곳곳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 준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매여 있다 보면 양손을 번갈아 가며 마사지할 여유나 힘을 내는 게 쉽지 않다. 손 마사지는 이럴 때 다정한 이에게 손을 내맡긴 듯 혈점만 영리하게 찾아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준다. 특히 손 마사지는 직원들 중에서도 컴퓨터 작업을 비롯해 유독 손 쓸 일이 많은 사무직원들을 위해 준비했다. 보안과 직원들은 휴게실에 별도로 비치된 안마 의자 덕에 찻잔이 피로를 털 수 있지만 사무 직원들의 피로 해소를 도와줄 물품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3가지 물품 중에서도 손 마사지를 '원픽템'으로 뽑은 복지과 김진서 공업서기보는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아 퇴근 무렵엔 손이 빠근해질 때가 많은데, 중간중간 손 마사지로 풀어 주면 통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겼다. 교정시설 내 도서관에서 책 대출과 반납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나주연 교도도 "늘 딱딱하고 무거운 책을 만지다 보니 손에 부담이 가중돼 연연중에 손을 주무르는 습관이 있다"며 앞으로는 셀프 마사지가 아닌 손 마사지의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혔다.



지친 심신에 건네는 향기로운 위로 '디퓨저 가습기'

뉴스에 산불 소식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계절. 건조주의보가 자주 뜨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가 거북한 실내 생활이 한층 불편해진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식물을 가까이 두며 환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보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가습기를 들이는 것. 이런 상황을 지나칠 리 없는 '교정인 원픽' 코너에서는 교정시설 내 건조주의보를 단박에 해제시킬 디퓨저 가습기를 선물했다. 메마른 실내에 알맞은 습도를 부여해 호흡기와 피부 건강을 돕는 일차적인 기능 외에 아로마 향의 디퓨저로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디퓨저 가습기를 가장 먼저 반긴 건 복지과 서재희 공업서기보. 그는 "무미건조했던 사무실에 가습과 함께 디퓨저 향이 나면 릴렉스 효과는 물론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질 것 같다"며 반색했다. 긴장 상태가 디폴트인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까지 감당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활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디퓨저 가습기는 실내 공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점막에도 촉촉하게 스며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까지 향기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세계유산, 삶의 골목이 공존하다 청주

충청북도 청주로 가는 길목에는 따사로운 온기가 서려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속활자와 서민들의 삶, 문화적 풍광이 정겹게 어우러진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첫발을 내미는 초년생 교도관들의 풋풋함과 청주의 오랜 삶이 어우러지면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세계유산 <직자>를 만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여자교도소가 자리한 청주는 세계유산을 간직한 도시다. 청주 흥덕사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을 인쇄(1377년)한 사원을 지녔다. 옛 절터에는 수려한 활자들로 외관을 채운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고인쇄와 관련된 박물관은 이곳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박물관에서는 흥덕사지 출토 유물과 함께 <직지심체요절>의 모든 것을 전시한다. 목판에서 금속활자까지 인쇄 발달 과정도 가상현실로 흥미진진하게 보여 준다. 박물관 옆에는 옛 흥덕사의 금당과 삼층석탑이 복원돼 있다. 박물관에서 운전동을 잇는 길은 청주 시민들에게 '우리단길'로 불리는 호젓한 산책로다. 북고풍 카페와 식당 등 레트로 감성 가득한 공간들이 봄날의 분위기를 돋운다.

전통을 복원한 문의문화재단지

청주 남쪽으로 내려서면 대청호를 낀 수려한 경치가 펼쳐진다. 대청호 일대는 예전 청원군이었다가 청주에 편입된 과거가 담겨 있다. 대청호 변에 자리한 문의문화재단지는 옛 문의 지역의 유적을 엿볼 수 있는 오붓한 공간이다. 단지 내에는 고인돌 등 선사 유적과 문산관을 비롯한 전통 가옥들이 대청호를 배경으로 원형 그대로 옮겨져 있다. 한편 단지 안에 들어선 대청호미술관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전통 단지 내 풍경과 묘한 반전을 이룬다. 20여 년간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된 청남대 역시 대청호 변에 들어서 있다. 역대 5명의 대통령이 휴가와 정국 구상을 위해 '남쪽의 따뜻한 청와대'인 청남대를 찾았다. 청남대는 일반에 개방됐으며 대통령이 실제 거주했던 본관 외에 대통령의 생활상을 간직한 대통령역사문화관 등이 주요 볼거리다. 정원에는 주목, 백송 등 정원수와 조형물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대청호반을 따라 호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시민들이 선택한 1위 여행지,
상당산성 성벽 길과
운보의 집

호수를 벗어나 청주의 산성 길을 걸으려면 상당산성으로 향한다. 상당산 자락의 상당산성은 청주 시민들이 1순위로 꼽는 대표 여행지다. 상당산성은 원형이 남아 있는 조선 시대 대표 석성으로 높이 4~5m의 성곽이 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산성에는 정문이자 남문인 공남문을 시작으로 서문, 동문과 2개의 암문이 있다. 상당산성은 두 갈래의 등산로가 봄 산책을 부추긴다. 성곽 아래 숲속으로 향하는 길과 성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성벽 길로 나뉜다. 산성의 둘레는 4.2km이며 성 일주에는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상당산성 뒤편으로는 전통 식당가도 조성돼 있다.

상당산을 에돌아 길을 택하면 '운보의 집'을 만난다. 운보의 집에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술관이 있고, 곳곳에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운보의 집은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벽화와 야경을 만나는 곳,
수암골

청주에는 삶의 흔적이 서린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다. 소박한 달동네였던 수암골은 벽화 골목과 일몰 명소로 탈바꿈했다. 구도심에서 우암산 자락으로 향하면 수암골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로 같은 골목을 오가며 만나는 벽화에서는 옛 청주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수암골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카인과 아벨> 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수암골과 우암산 순환도로가 만나는 포인트에는 수암골 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해 질 녘 전망대에 오르면 청주의 아늑한 야경이 펼쳐지며, 전망대 주변으로는 카페들도 불을 밝힌다.

구도심에 내려서면 중앙공원에 들려 볼 일이다. 중앙공원에는 1,000년 된 은행나무인 '압각수'와 목조 누각인 '병마절도사영문' '망선루' 등이 운치를 더한다. 중앙공원 뒷길은 청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성안 길로 연결된다. 성안 길에서는 독립서점 투어 등 새로운 트렌드의 청주 여행을 할 수 있다.

맛과 향수가 깃든 골목,
서문시장

상당구 서문시장은 청주 사람들에게는 향수의 장소다. 버스 터미널이 있던 서문시장 일대는 사람들의 들고남이 잦은 곳이었다. 두툽한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치기 위해 부담 없이 찾던 공간은 터미널이 거여동으로 이전하면서 색다르게 변모했다. 한때 청주 육거리시장 못지않게 번성했던 서문시장에는 삼겹살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다. '삼겹살 거리'라는 별도의 타이틀을 지닌 곳은 전국에서 청주가 유일하다.

돼지 캐릭터와 지글지글거리는 불판 소리는 서문시장의 트레이드마크다. 간판에는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골목 한편에는 돼지 모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마련돼 있다. 해 질 무렵이면 시장 내 네온사인인 충천연색 조명으로 단장된다. 여행의 묘미는 '맛집 투어'와 '추억 사진 남기기'라고 말하는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에게 안성맞춤인 곳. 초창기 7곳이었던 삼겹살 식당은 15개까지 늘었다.



간장 소스 적셔 먹는 '청주식 삼겹살'

청주에서는 두툽하게 썬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적셔 먹는 게 대세다. 소금을 뿌려 먹는 방법에서 변모해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 청주식 삼겹살구이의 정석이 됐다. 일본식 소금구이를 뜻하는 '시오야키'라는 간판을 내건 청주 삼겹살집에서는 예전부터 독특하게 간장 소스가 함께 나왔다.

사실 간장 소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건 수돼지를 식육으로 사용했던 시절 돼지 잡내를 잡기 위해서였다. 달인 간장은 잡내 제거뿐 아니라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효과를 냈다. 식당들은 조선간장에 생강, 당귀, 계핏가루, 마늘, 녹차물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어 자신만의 소스 맛을 낸다.

청주 일대의 돼지고기는 예전 궁중에 진상했을 정도로 맛이 유명했다.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고기를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은 삼겹살거리 등 청주의 식당들이 지켜오는 규칙이다. 삼겹살은 0.8cm 정도로 두툽하게 썰어 내놓는다. 간장 소스와 함께 청주 삼겹살의 맛을 돕는 음식이 파절이다. 이곳 상인들은 파절이의 유래 역시 청주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식초, 설탕, 고추를 넣어 매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낸 파절이는 두툽한 삼겹살과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여기에 묵은지까지 곁들이면 '간장 소스 삼겹살+파절이+묵은지'의 청주 삼겹살 삼합이 완성된다.



‘재활용 가면’을 쓴 쓰레기는?

쓰레기 생산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실천해 온 사람들은 가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재활용인지 아닌지 혼동되는 품목, 또 재활용 마크가 표시됐지만 사실은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가면을 쓴 쓰레기를 찾아보자.



깨진 병, 판유리, 조명 기구용 유리류

비교적 재활용과 재사용이 용이할 것 같은 유리류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깨진 병이나 판유리, 조명 기구용 유리류가 그 예다. 파손된 유리 조각은 크기가 너무 작아 선별이 어려운 데다 선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품목과 함께 분리배출하게 되면 수거 및 하차 과정에서 봉투가 파손되기 쉽다. 그러므로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판유리는 ‘특수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특수 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코팅되거나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조명 기구용 유리류는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문에 싸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유리류처럼 착각하기 쉬운 재활용 불가 품목

도자기류, 사기그릇, 화분, 타일 ▶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

※ 조개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면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연성 쓰레기를 유리병과 함께 분리배출하면, 유리병을 재활용해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자기류와 사기그릇은 불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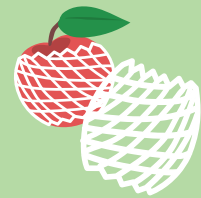
분리배출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품목

환경부는 2020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미대상 품목을 정리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선별 업체들이 잘못 분리배출된 품목을 선별하느라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지한 안내 자료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분리배출 항목으로 오해하거나, 배출 방법에 의문이 들었던 품목이 정리된 것이다. 환경부가 안내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자.

분리배출이 아닌 항목, 그 이유와 배출법은?

과일 망, 과일 포장재

과일을 감싸고 있는 망과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일 망과 과일 포장재는 단일 스티로폼 소재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분리수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배출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다양한 성분이 혼합된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재질이나 상황에 따라 혼합 성분 제품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일 망과 과일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어려운 다른 품목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고무장갑, CD·DVD, 슬리퍼

※ 노끈 또한 제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세요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재활용 마크가 표시된 품목이더라도 각종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세척하지 않은 컵밥과 컵라면 용기류는 음식물이 남아 있으므로 재활용이 어렵다. 깨끗하게 씻은 후 헹별에 말려 양념 자국을 지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마요네즈와 케첩 통, 기름통 등도 마찬가지다. 꼼꼼히 세척했다더라도 통 안의 음식물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자. 그래야 분리배출된 다른 품목의 오염을 막고 선별하는 데 드는 수고로움도 줄일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위에 소개된 **재활용 분리배출법**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직장인 절반 이상, 먼 출퇴근 거리에 스트레스받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4분이라고 한다. 주거지와 근무지를 구분해 도시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출퇴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이에 출퇴근 거리로 인한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근무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교정공무원의 상황도 들여다보고자 한다.



업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퇴근 거리, 직장인 절반은 '스트레스 호소'

55.8%

출퇴근 거리에 스트레스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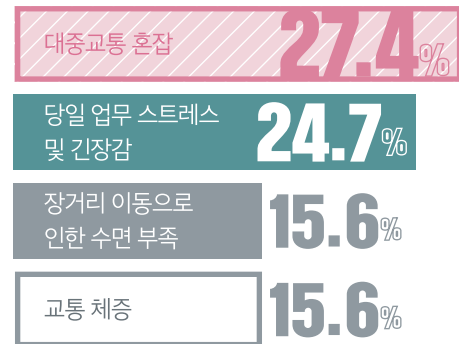
최근 출퇴근 거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업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56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와 업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55.8%)이 '평소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낀다(50.0%)'고 답했다.

직장인 11.1%, 출퇴근 거리 멀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적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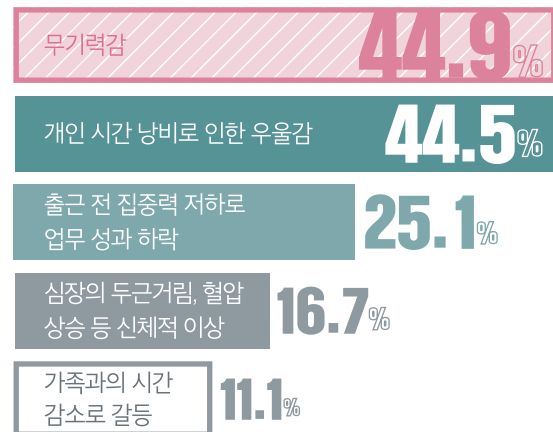


직장인 1,556명 가운데 44.9%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출근하기 전부터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한다. 심지어 11.1%는 너무 먼 출퇴근 거리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정공무원은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출퇴근 거리가 개인의 건강이나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퇴근 거리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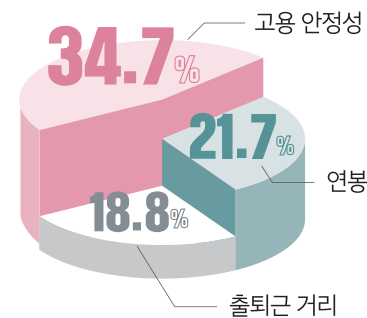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의 영향(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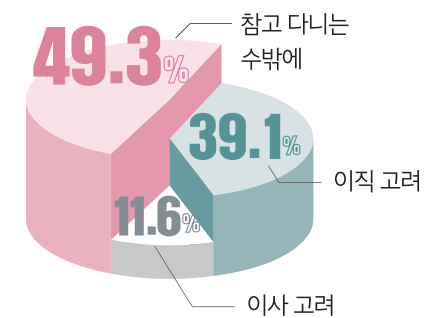
'출퇴근 거리' 직장인이 입사 시 고려하는 요인 3위

직장인은 입사 시에도 출퇴근 거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직장인들은 '고용 안정성'(34.7%)과 '연봉'(21.7%), '출퇴근 거리'(18.8%) 등 순으로 답했다. 직장인의 상당수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등이 업무 성과에 매우 효과적이다'(56.6%)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현장 계호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전면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즉 교정공무원의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를 견디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과 물품 그리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선택 시 고려하는 중요 요인



출퇴근 거리로 인한 직장인의 고민



교정공무원의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 Check List

재택근무 전면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정 시설. 교정공무원의 출퇴근 거리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교정공무원 스스로 상황을 점검해 보자.

1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 거주지, 기존 거주지와 비교)

- 10분 이상~30분 미만
- 30분 이상~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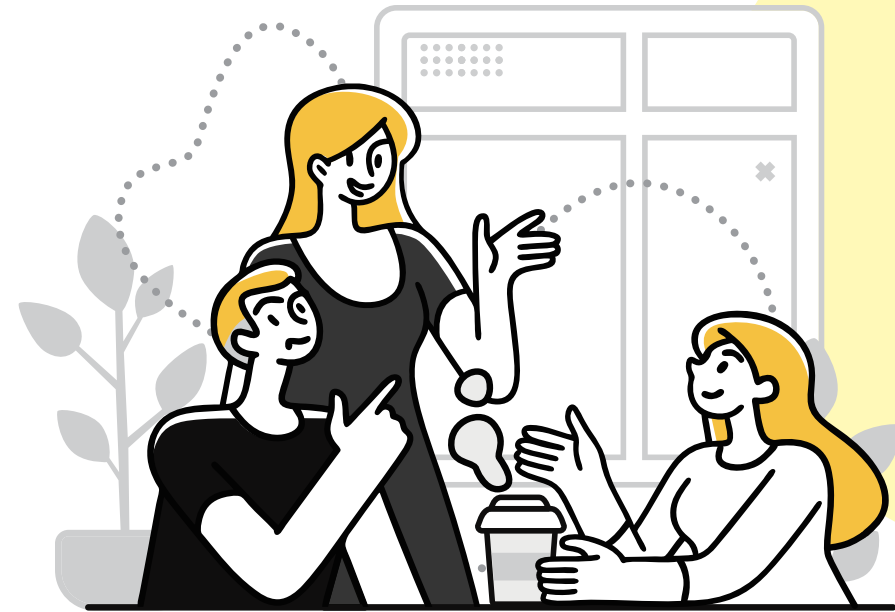
2 출퇴근 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우울감 등 건강 이상
- 피로로 인한 업무 시 집중력 저하
- 가족 관계 단절

3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안마의자 등 복지 물품
-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 가족과 함께 살 관사 제공





자신을 바꾸면서까지 사람을 만나야 할까?

내향적인 사람들의 고민, '인간관계'

세상은 점점 더 외향성을 강조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SNS에 자신의 멋진 모습을 적어 올리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밤 늦도록 사람들과 뒤섞여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내향성이 없다면 큰일이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카를 구스타프 융이 찾아낸 내향성이나 심층 무의식, 페르소나 같은 말도 없을 테고, 예민한 작가였던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읽지 못했을 것이며,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외친 여성의 미래도 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은서 씨는 자신의 내향성이 고민이었다. 하지만 은서 씨와의 상담에서 주로 나는 이야기는 내향성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향적인 사람이 가진 장점과 재능이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면 더 멋진 삶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내향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되도록 관계를 맺지 말라는 조언이 주를 이루었다. 내향성에 대한 은서 씨의 생각이 바뀌자 상담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내향성이 걱정이라 성격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타

고난 기질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자신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내향적인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간관계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관계의 기술이 느는 법이니 내향적인 사람은 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타인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 힘든 것 역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인물인 버락 오바마처럼 연습을 통해 비록 내향적이어도 자기주장을 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을 무시하고 욕심만으로 인간관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은서 씨에게 했던 조언도 지금까지 맺었던 인간관계를 줄이고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내향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사람마다 다른 인간관계의 적정량

자기 한계를 넘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사람마다 인간관계의 적정량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

는 한도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나의 내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일레인 N. 아론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나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 주디스 올로프의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같은 책으로 자신의 내향성이나 민감성을 가늠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에는 민감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나온다. 그중에서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들어가 자극을 진정시켜야 한다”라는 문항은 내향성 높은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일레인 N. 아론은 내향성이 강하다면 가급적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적게 만나는 직업이나 직책을 얻으라고까지 조언한다.

관계 중심 사회에서 내향적인 사람이 받는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남의 말이나 상식에 좌우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인간관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꼭 성격 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관계는 감당하기 어렵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에 따르면 아무리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을 넘지 못한다. 그 이상은 뇌가 감당하기 어렵다. 사실 이 150명 역시 얼굴을 아는 정도이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20명 정도가 최대치다. 그런데 이는 외향적이고 친화성이 높고 개방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내성적이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5명 이하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족을 제외하고 2-3명 이상은 돼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우울증이 잦은 이유는 이 2-3명이 가까이에 없어서일 때가 많다.



내향성을 강점으로 삼는 인간관계 형성법

내향적 사람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고술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지키는 ‘가슴의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적인 자리, 많은 사람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며 자기주장을 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사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헤아리는 대화는 외향적 사람보다 내향적 사람에게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그저 주변 사람과 평소대로 속내를 터놓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릴 때 자신 있게 소통하는 일이다.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잘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내려놓는다(감정 조절 연습).
- 평소 거울을 보면서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다(대화 연습).
- 성격은 바꿀 수 없으니, 진짜 자아 대신 대화를 나눌 페르소나를 만든다(가면 만들기).
- 처음에는 잘 아는 사람부터, 나중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의도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 본다(둔감해지기 연습).
- 대화를 나눈 뒤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나를 다독이는 다양한 위로 방법을 개발한다(자기 격려 기술).

자기주장 기술에 관해 좀 더 배워 보는 것도 좋다. 성공한 배우 가운데는 의외로 내성적이거나 민감한 사람이 많다. 가끔 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성격과 대화, 연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장면을 접한다. 대개 그 해결책은 충분한 연습이다. 연습하고 연습하면 남들 앞에서 자신 있는 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이 굳어져야 한다. 나를 믿어야 남들 앞에서 떨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대화 연습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믿는 마음부터 기르는 일이 먼저다. 술한 역경을 넘어야 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화장품 재활용 편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온다. 우리는 이 시기를 환절기라고 부른다. 이때 온습도의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지는 만큼 계절에 맞춰 화장품을 바꾸는 게 좋다. 그럼 남은 화장품은 어떻게 할까? 화장품의 사용 기한과 버리는 법, 그리고 남은 화장품을 재활용하는 꿀팁을 알아보자.

화장품, 버릴까 말까 고민이라면

1

화장품은 얼마나 쓸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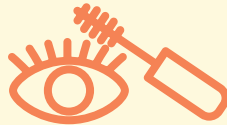
화장품은 유통기한과 사용 기한이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날을 뜻하고 사용 기한은 개봉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개봉할 때 화장품에 라벨지나 네임펜을 이용해 날짜를 써 두면 좋다. 대개의 경우 개봉 기준으로 메이크업 제품은 1년 6개월, 스킨로션 및 자외선 차단제는 1년, 기능성 크림은 6개월~1년, 아이 크림 및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6개월이 사용 기한이다.



2

오래된 화장품은 위험하다

얼마 전, 유통기한이 20년이나 지난 마스크라를 사용했다가 실명에 이르게 된 여성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됐다. 마스크라가 눈에 심각한 감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 등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은 3~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립 제품도 오염이 잘되는 화장품이라 유의해야 한다.



3

변질된 화장품 구분하기

사용 기한 이내라도 개봉했을 때 좋지 않은 냄새가 나거나, 내용물에 층이 생겨 분리된 액체류 화장품, 용기가 팽창된 화장품은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제 용도가 아니라면 버려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는 듯하지만 바를 때의 느낌이 달라졌다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려면 가급적 온도가 높은 곳이나 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4

화장품 버리는 법

액체형, 크림형 화장품은 신문지나 휴지에 남은 화장품을 흡수시키거나 닦아 낸 후, 병은 씻어서 재질에 따라 분리수거하면 된다. 튜브형은 용기를 반으로 잘라 내용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용기는 분리수거한다. 콤팩트나 섀도 등 고체형 제품은 내용물을 긁어내고 용기는 클렌징 워터로 씻어 낸 후 분리해 배출하자.



청소부터 헤어팩까지, 생활의 발견

청소부터 헤어팩까지, 생활의 발견 훌륭한 생활 세제, 샴푸와 린스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와 린스는 훌륭한 생활 세제가 된다. 샴푸는 청소 세제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풀어서 사용하면 욕실 청소할 때 얼룩과 물때까지 깨끗하게 지워진다. 린스를 천에 적셔 욕실 거울을 닦으면 김이 잘 서리지 않는다. 린스는 줄어든 니트를 원상 복구할 때도 쓸 수 있다.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풀고 줄어든 옷을 10분 정도 담갔다가 원하는 크기로 살살 늘려 주면 된다.

안 지워지는 스티커 자국엔 선크림



새로 산 그릇이나 자동차 유리에 붙은 스티커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다면 오래된 선크림을 써 보자. 선크림을 듬뿍 발라 5~10분 정도 불린 다음 마른 천으로 닦아 내면 깨끗하게 떨어진다. 테이프 등의 자국이 남은 곳이나 녹이 손 가워도 선크림을 묻혀 10분 정도 후에 닦아 내면 녹과 테이프 자국이 사라진다. 가위 외에도 쇠로 된 제품에 녹이 슬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보디 스크럽부터 클리너까지, 로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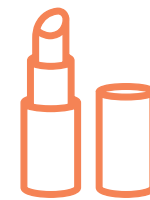


오래되어 심하게 변질되지 않았다면 흑설탕이나 곡물 가루 등 입자가 거친 제품과 섞어 스크럽제를 만들어 보자. 각질이 생기기 쉬운 발뒤꿈치, 팔꿈치 등에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한 후 씻어 내면 한층 촉촉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각질이 심한 부위는 오일을 1~2방울 섞어 주면 더 좋다. 피부에 사용하기 짙은 로션은 마른 천에 묻혀 소파나 가구를 닦아 주면 얼룩도 지울 수 있고 광택도 난다.

고농축 영양을 손상된 모발로, 영양 크림



특히 크림에 집중된 기능성 화장품은 사용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다. 영양 크림과 기능성 오일은 손상된 모발에 바르면 훌륭한 헤어 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도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영양 성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젖은 머리카락 전체에 두피를 피해 충분히 바르고 20분 정도 지나 헹구면 모발에 윤기와 영양이 되살아난다. 손상 정도가 심한 크림은 스팀 타월로 머리를 감싼 뒤 팩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각질 응급처치와 은 제품 청소엔 립밤, 립스틱

겨울철 입술을 보호했던 립밤은 얼굴 각질이 심한 부분에 조금 바르면 은은한 피부 광택과 함께 각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또 향수의 향이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면 손목 안쪽 등에 립밤을 바른 다음 향수를 뿌리자. 향수만 뿌렸을 때보다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된다. 립스틱은 은 제품의 녹을 없앨 수 있다. 립스틱 속 오일과 왁스 성분이 막을 형성해 녹을 없애거나 녹슬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은 제품에 립스틱을 묻힌 다음 마른 천으로 닦아 주면 된다.

매번 배신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2020년도에 대한 직장인 연말정산이 끝났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훌쩍하게 줄어든 월급봉투를 보고 한 달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려받는 데 실패한 직장인 중에는 '올해는 연금저축을 들어야지' 혹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낫다는데 올해는 체크카드를 써 봐야지'라는 생각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우위 가리기 어려운 신용·체크카드 사용

필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 항목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배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어느 카드를 쓰는 것이 나은지는 개인의 총급여 및 과세표준과 소비 규모, 소비 패턴 등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카드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공제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한 뒤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연말정산을 떠나 카드 사용액 자체를 줄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한 달 소비 목표액을 계좌에 넣어 두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 효과를 떠나 가장 바람직한 소비 습관일 수 있다.

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만 혜택받을 수 있어

일단 카드 공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다.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을 줄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준다는 개념이다.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는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개념이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과 대비되고, 세액공제는 세금과 대비된다고 보면 된다. 카드 공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

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처음 카드 사용을 장려할 당시 기왕할 거라면 카드 사용액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소비가 카드로 결제되다 보니 '카드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다. 카드를 마구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조금씩 폭이 달라진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가 연 200만 원이라, 소득을 감안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미미하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총급여=연봉'이 아니라는 점이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비,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고 반대로 성과급처럼 과세되는 항목이 포함된다. 정확한 총급여는 홈택스 지급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카드 공제 항목은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를 예로 들면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일단 이것이 중요하다. 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대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알뜰족'이라면 카드 공제에 따른 환급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요즘은 맞벌이라면 각각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 꼭 맞아떨어지는 조언은 아닌 듯하다.

체크카드가 공제를 높지만 신용카드 혜택, 소비 패턴 고려해야

A씨 사례를 조금 더 보자. A씨가 연봉 4,000만 원에 신용카드만 2,000만 원을 쓰는 경우와, 체크카드를 2,000만 원 쓰는 경우를 가정하자. A씨가 신용카드만 썼든 체크카드만 썼든 25% 초과분인 1,0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해 150만 원이 공제액이 된다(초과분 1,000만 원×15%). 그

리고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 원 구간일 테니 세율이 15%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150만 원을 대상으로 15%를 돌려받아 22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것이다.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잡히고 총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체크카드만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2,000만 원에서 초과분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30%를 공제받아 300만 원이 공제 대상액이 된다. 여기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돌려받는 돈이 45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비교해 22만 5,000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22만 5,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A씨가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뽑아내는 현명한 카드 이용자라면, 어쩌면 신용카드로 인한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A씨가 상당한 '집순이'로,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쿠팡과 쿠팡이츠를 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쿠팡 등 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지급하는 카드 중에 신한카드의 'Deep ECO(딥에코) 카드'라는 것이 있다. 딥에코 카드는 쿠팡(쿠팡이츠 포함),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 사용액의 5%를 되돌려준다. A씨가 매달 60만 원씩 딥에코 카드를 사용했다면(연 720만 원), 딥에코 카드로 인한 환급액이 총 36만 원에 달한다. 이 정도만 해도 신용카드로 인한 혜택이 체크카드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분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본인의 카드 사용 스타일에 따라 연말정산보다 카드 사용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변수는 하나 더 있다. 총 2,000만 원의 소비액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것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율이 40%로 적용된다. 또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비나 상품권 매입 금액 등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변수도 고려해 본인의 소비 스타일에 맞춰 알맞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정하면 될 것이다.

영혼을 울리는 맑은 영화, 픽사의 <소울>

코로나 시대에 찾아온 픽사의 힐링 애니메이션 <소울>이 전하는 영롱한 감동에 대하여.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다. 지난 1월 20일에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2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소울>은 지난 2월 26일 기준으로 1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근래 보기 드물게 화제가 된 극장 개봉작이 됐다. 심지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극장 운영이 불가하고, 상영관 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울>이 거둔 성적은 그 자체로 기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소울>은 좋은 작품의 저력을 보여 주는 최선의 사례다. 그리고 매년 한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발표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공력을 증명하는 최신의 절정이다. 픽사는 1995년에 개봉한 <토이 스토리>로 영화 역사상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이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등을 통해 기술과 예술이 맞물려 이루는 감동의 경지를 거듭 넓혀 왔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소울> 이전에 픽사의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이었던 피트 닥터에게 2015년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인사이드 아웃>은 그해 8억 67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며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고, 이듬해엔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했다.

일찍이 <몬스터 주식회사>와 <업>을 연출한 픽사의 최고 브레인 피트 닥터는 또 한 번 픽사의 빛나는 역사를 낡은 장본인이 됐다. 하지만 피트 닥터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만한 경험도 없을 텐데 왜 아직도 내 인생이 완전히 채워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걸까?' 픽사의 2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소울>은 바로 그 물음표를 구체화한 작품이다. 명량한 성격의 열한 살짜리 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것을 본 피트 닥터의 고민에 착안한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다. <소울> 역시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물음표를 심어 키워 낸 결실이다.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 발전시킨 가장 창의적인 이야기인 셈이다.

재즈의 선율과 영혼의 울림

<소울>의 주인공 '조 가드너'는 뉴욕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아가길 꿈꾸지만 현실은 중학교 파트타임 음악 교사다. 그나마 정규 교사로 채용되어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은 덕분에 아들이 음악을 한다는 사실이 늘 못마땅했던 어머니의 환대를 받지만 당사자 마음은 심란하다.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을 들뜨게 만들 전화가 걸려 온다.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 도로테아 윌리엄스의 재즈 클럽 공연에서 피아노 세션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소울'이라는 제목은 중의적이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사후 세계의 영혼을 직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즈 음악에서 일컫는 소울을 뜻하기도 한다. 동시에 죽은 자로부터 분리된 영혼의 존재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는 재미만큼이나 영혼을 담은 육체로 맞이하는 매일의 감각을 깨우고 보다 생생하게 체감하는 울림이 상당한 영화다. 그런 의미에서 <소울>이 말하는 '소울', 즉 영혼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지금 존재하는 나의 내면, 진정한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소울>에서 음악은 영화적인 요소를 넘어 주요한 캐릭터나 다름없다. 나인 인치 네일스의 트렌트 레즈너와 아티커스 로스 듀오가 만들어 낸 스코어는 사후 세계의 신비감을 고양시키면서도 극 전반에 따뜻한 온기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과도 같다. 트렌트 레즈너는 '지구의 것이 아닌 듯한' 사운드를 만들어 영롱하게 반짝이듯 은은하게 퍼지거나 리드미컬한 울림을 잔잔하게 쌓아 가는 음악으로 공감각적인 묘미를 선사한다.

픽사의 처음이자 현재진행형의 성취

본래 조 가드너로 정착하기 전까지 그 자리를 차지한 캐릭터는 주인공으로 고려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원래는 영혼 '22'의 길잡이 정도의 캐릭터였고, 흑인이 아닌 백인이었으며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닌 배우나 과학자로 구상했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을 더 강하게 당길 만한 직업군을 고려하며 재즈 뮤지션이 됐고, 그에 걸맞은 흑인 캐릭터로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파트타임 작가로 고용했던 흑인 감독 캠프 파워스에게 공동 감독의 지위를 부여했다. 덕분에 조 가드너와 캠프 파워스는 각각 픽사 최초의 흑인 주인공과 픽사 크레디트에 처음 이름을 올린 흑인 감독이 됐다.

피트 닥터는 지금껏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해 왔던 실수를 <소울>에서만큼은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유색인종 캐릭터를 동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특성을 반영해 의인화한 동물 캐릭터를 그리는 데 거리낌이 없던 이전까지의 관습을 철저히 밀어내고자 했다. <소울>의 유세미나에 머무는 영혼들이 어떠한 인격도 갖추지 않은 무의 성질로 그려지는 것도 그런 성찰의 결과다. 그러니까 매너가 남자를 만들고, 영화도 만든다.

참고로 <소울>은 피트 닥터가 픽사의 창작 부문 최고책임자로 부임한 이후에 만든 첫 작품이기도 하다. <소울>은 성추행 문제로 픽사에서 퇴출된 전임 창작 부문 최고책임자 존 래시터의 그림자를 완전히 잊게 만든 작품이란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그리고 <소울>은 <토이 스토리>로 시작한 픽사의 모험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거듭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픽사의 새로운 영토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라는 <토이 스토리>의 도전적인 대사는 오늘날 "매 순간을 살아가자"는 낭만적인 울림으로 진화했다.

누군가는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가끔 어떤 꿈은 삶을 잡아먹는다. 많은 사람이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그런 이들의 일상이 모여 세계의 하루가 흘러간다. 즉 위대한 악보를 완성하는 삶이 있다면 음표를 따라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소울>은 바로 그런 순간의 감각을 일깨우는 영화다. 자신을 위해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성공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 그렇게 영혼을 맑게 울린다. 정말 좋은 영화다.

Health Infographics

세상을 보는 창을 맑게, '눈' 건강 이야기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옛말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TV가 없던 옛날에도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서 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각종 디지털 기기와 공해로 위협받고 있는 눈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안구건조증

- 정의** 눈물의 고삼투압과 안구 표면의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 원인** 눈물 분비 부족, 지나치게 증발하는 눈물 양
- 치료** 생활환경과 습관 개선, 인공 눈물 등 약물 치료, 눈물점 폐쇄 수술

백내장

- 정의** 눈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
- 원인** 유전·당뇨병 등 질병 관련, 흡연과 음주 등 생활 습관, 자외선
- 치료** 안약 등으로 진행 속도 지연은 가능하나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

노안

- 정의**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 원인** 노화로 인한 수정체의 탄력성 저하와 수정체 비대
- 치료** 안경 착용,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 엑시머 레이저 수술

녹내장

- 정의** 시신경 이상으로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
- 원인** 안압 상승, 시신경 유두의 허혈
- 치료** 약물요법을 기반으로 레이저 치료나 수술로 안압을 낮추는 시술

Healthy Guide

맑은 눈을 위한 솔루션

컴퓨터 모니터 작업, 스마트폰 등으로 우리 눈이 피로하다.
 환절기엔 안과 질환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눈 건강을 지키는 일상생활 속 솔루션을 알아보자.

하루 5분 투자하기

잊지 않고 틈틈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Healthy Guide 01 눈 자주 깜빡이기

눈을 자주 깜빡여 안구를 촉촉하게 만들어 눈 자극 줄이기



Healthy Guide 02 멀리보기

1시간 근거리 작업 후 5분 이상 멀리 있는 물체 보기



Healthy Guide 03 안과 검진

눈 건강 유지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
 시력검사 외에 건강검진처럼 매년 안과검진 받기



Healthy Guide 04 눈에 좋은 식품 섭취

기름진 생선, 달걀, 녹황색 채소 섭취
 과일과 채소에는 안토시아닌, 루테인 풍부

나도 혹시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체크리스트

- 자주 눈이 부신다
-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
-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 시력이 떨어졌다
- 눈이 시리거나 목직하다
- 건조한 곳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나	의				
직	업	교	도	관	

교도관은
 흰 담 안의 허수아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회색의 허수아비
 나는 빨간 단풍잎 같은 허수아비가 좋다.

교도관은
 전쟁과 평화의 작은 섬의 외로운 등대
 오늘도 없는 길을 끊임없이 만들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험난한 작업
 수용자들을 바른길을 위해 고뇌하고
 철창 속에 갇힌 수용자들을 사랑으로 꽃피우고
 사랑별 향기는 수용자들의 마음으로 물입된다.

교도관은
 흰 담 안의 꺼지지 않는 촛불
 수용자들을 하나둘 씩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밀면
 그 촛불은 태풍이 불고
 무지개가 춤추어도 꺼지지 않으리라……

교도관은
 떠나지 못하는 배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마음의 무기로 무장한 전쟁터에서 몸부림에 지친다.

강	화	도			
평	화	전	망	대	

양떼구름 아래 강화도 평화 전망대
 들어도 보아도 나의 영혼이 존재하리라……
 한강은 남북이 서로서로 휘감고
 가깝고도 먼 땅
 보이고도 갈 수 없는 땅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38선이 꼭꼭 숨은 물만 보았다.
 오백원을 땡그랑 넣고 쳐다 보니
 보이는 곳은 북한땅 황해도
 저 물 건너 강냉이 따는 아낙네의 초췌한 모습
 밭에서는 강냉이 수염이 휘날리고
 통일의 희망은 부서지는 파도소리에서 들려만 온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콩콩 얼어붙은 얼음이 녹고
 들풀의 향기가 땅을 흔들 땐
 아지랑이 휘감긴 철책선의 봄도 오겠지
 군인 없고 총 없고 철책선이 죽고
 비로소 육지는 하나가 되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못	
	어
지	머
켜	니
	,
죄	약
송	속
해	을
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것이 많이 부끄럽지만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 봅니다. 때는 2018년 9월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선물해 드린 스쿠터를 몰고 장을 보러 나가신 그날, 저희 집은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말 그대로 풍비박산났습니다. 달려오던 상대 차량의 속도는 99km/h로, 그 차와 부딪힌 아버지께선 뇌출혈과 경추 골절, 우측 어깨부터 다리까지 대부분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사지 마비에 이어 결국 중증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슬픔으로 채워 나갔고 그야말로 TV에서 보던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가정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와 저는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밤이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아버지셨는데 저희 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병실 뒤편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잘못되실까 너무 무서웠지만 점차 호전이 돼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기쁜 마음에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어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든 헤쳐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굳은 다짐이 느껴져 저도 그러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이 었그제 같은데 이 못난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를 혼자 둔 채 이곳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접견실에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맘 편히 두 발을 뺄고 자겠냐. 이 엄마도 같이 아들과 옥살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듣기도 겁이 나는 말을 하며 문을 나가시던 어머니의

“
 제가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게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기까지
 꼭 건강히 기다려 주세요
 ”

뒷모습에 걱정이 돼 단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기죽지 말고 맘껏 놀고 사 먹으라며 매일 아침 주머니에 용돈 3,000원을 넣어 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나네요. 어린 마음에 용돈이 많아 집이 어려운 것도 모르던 못난 아들이었죠. 어머니는 당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은 단 한 번도 마음대로 해 보지 못 하시고 그저 아들 잘되는 게 전부라 여기던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큰 사고로 마음이 진정되기 전에 아들이 너무 큰 사고를 쳤네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아들이 30년 인생에서 이제야 비싼 인생 공부를 이곳에서 늦게나마 시작하려나 봅니다. 여기서 좋고 바른 것들만 보고 배워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구속되기 전 저의 미련한 모습은 모두 훌훌 털어 버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난날을 반성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 후회하며 각성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지치고 힘드셨죠? 지난날 우리가 손을 맞잡고 했던 그 약속,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해도 될까요? “어떻게든 헤쳐 나가기보다 이제는 서로 많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요.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 제가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게 제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꼭 건강히 기다려 주세요.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

주거지원 대상 출소자의 지원 기간 내 재범 위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①

홍명기***·공정식***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제88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audrl0406@gmail.com).

***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수, 교신저자(crime0824@daum.net).

▶ 접수일(2020. 10. 14.), 심사일(2020. 12. 23.), 수정일(2020. 12. 27.), 게재확정일(2020. 12. 28.)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중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기간 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업에 신청하여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점인 어떠한 사건(재범)의 발생 기간에 대한 정보 손실을 보완하고자 생존분석(continuous 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중 기간 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는 2.76%로 나타났다. 3개월 단위로 이들의 위험비를 분석한 결과 7~9개월 사이에 위험비가 0.0046(100명 중 0.46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기간에 대한 누적 위험비를 살펴보았을 때 지원이 시작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장래에도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x 회귀분석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전과횟수, 범죄유형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전과가 2범 이상 또는 항정관련 사범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갱생보호사업, 주거지원, 재범(지원이탈), 생존분석, 중도절단, cox 회귀분석

I. 서론

재범은 한 개인이 과거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刑)을 집행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ltz(1984)는 재범의 원인을 '개인이 사회로의 복귀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사회가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현대에 완성된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방법(징역 등)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Bianchi, 2010). 따라서 기존의 재범에 대한 정책과 연구들의 경우 개인적 특성을 재범의 원인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Romero-Martinez, Lila, Gracia and Moya-Albiol, 2019; 김현수·김현실, 2001; 이동원, 2003; 이진구·강정석, 2018). 그러나 재범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특징으로 한정하는 것은 범죄자와 일반인을 서

로 다른 존재로 분리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와 일반인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범죄자를 배척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하게 된다. 이는 Maltz(1984)가 언급한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의 실패'를 의미한다. 실제 미국은 1900년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바탕으로 교도소를 이용하였으며,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주의 교도소 인구가 연평균 8.1%씩 급증하였다. 이러한 교도소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교도소의 건축, 관리 인원의 증대와 같은 비효율적인 부담을 증대시켰다(King and Mauer and Huling, 2003). 이러한 범죄자의 배제를 통한 범죄예방정책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며, 그 대상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다(정소영, 2017).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재범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개인의 사회복귀 실패'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범죄자는 왜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 학자들은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 가능성(Huebner, DeJong and Cobbina, 2010), 주거의 불안정성(Lutze and Rosky, 2014), 낙인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Berg and Huebner, 2011) 등이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舊 갱생보호공단)에서 갱생보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지원사업의 기준과 과정 그리고 문제점들을 질적인 방법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고 논의해왔다(박병식, 2011; 박상열, 2016; 조희원·도광조, 2019; 최우영, 2013). 특히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해당 사업에 지원한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며(Lee, Tyelr and Wirght, 2010), 위험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Lutze and Rosky, 2014), 지역사회와 가족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 출소 이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Flavin, 2004). 주거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주거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rk, Barnes, Hyatt and Kearley,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범과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재범 연구의 분석방법이 대부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재범이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의미가 존재하지만, 재범의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소 이후의 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개별 출소자의 출소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0과 1로 재범을 구별하여 분석)에서 한계가 존재한다(한영선·장현석·홍명기·Liv, 2019). 따라서 이러한 시점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생존분석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는

차별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5년 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혹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기존의 재범위험 요인들을 투입하여 주거지원 출소자의 재범 위험기간과 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갱생보호사업의 이론적 논의

갱생보호사업은 범죄 및 비행에 저지른 자에 대해 지도감독 혹은 원조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박상열, 2016). 이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호관찰제도가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유권적인 사회 내 처우라고 한다면, 갱생보호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사회 내 처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최우영, 2013). 또한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1차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술한 갱생보호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정소영, 2017).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에 대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수하고 있기 때문에(정소영, 2017), 상대적으로 학문적·정책적인 중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홍봉선, 2002).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의 의의에 기본 근거가 되는 이론을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지원에는 중요한 네 가지의 전제가 요구된다. 앞의 세 가지의 전제는 출소자가 사회에서 시설로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일종의 과정이며, 마지막 전제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갱생보호사업이 추구해야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출소자는 출소 이후에 입소 전 생활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이다. Goffman(1961)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¹⁾으로 입소(수감)되는 순간 구금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절차들에 의해 신체적·정신적인 오염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물을 박탈하고 동일한 물건을 배급함으로써 기존 사회에서 인정받아온 자아 혹은 정체성이 훼손되기도 하며,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단절된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사회 내에서 연결된 다양한 관계들이 차단된다. 따라서 출소 후 출소자는 자신의

1) 총체적 기관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거주 하고 일을 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고, 총체적 기관 내에 있는 개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공통의 일과를 보내며, 이는 공식적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된다(Goffman,1961: 11).

사회적 지위가 입소 전과 더 이상 같을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낙인’이 새롭게 형성된다. 또한 다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며, 거주할 집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최관(2015)의 연구에서도 출소자들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당장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전제는 ‘출소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의 관리를 위해 전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낙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출소자들을 배제하는 근거(도구)로 사용된다(Bianchi, 2010). 이러한 외적·내적 낙인은 출소자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총체적 기관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의 ‘일·보상’ 체계(Goffman, 1961)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취업과정(Bushway and Reuter, 2002)의 방해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부족하여 사회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강호성, 2018). 특히, 여러 관계들 중에서도 가족관계는 개인의 가장 큰 지지 자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회복은 곧 원활한 사회복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김서현, 2019).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안정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습적인 제도와 규범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Sampson and Laub, 1990). 그러나 국내의 출소자의 경우 가정이 와해되거나 독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다(이동훈·조은정·양순정·양하나, 2017). 국내의 이혼한 남성 출소자들의 가족관계 단절 경험을 분석한 연구(김서현, 2019)에 따르면, 가족의 해체가 출소자의 우울, 무력감, 외로움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성향을 만들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혹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적인 사회적 복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Laub, Nagin and Sampson, 1998; Uggen, 2000). 그러나 조희원·도광조(2014: 55)에 따르면, 출소자들은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과기록으로 인한 신분상의 제약, 경력단절, 신용상태 그밖에 많은 저해 요인들로 인하여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전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출소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복귀라는 개념을 새롭게 측정하기보다 사회복귀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Berg and Huebner, 2011; Link, Ward and Stansfield, 2019; Uggen, 2000), 혼인상태(Andersen and Aandersen, 2015), 가족과의 관계 및 지지(Berrick, Lattimore and Visher, 2014; Huebner, DeJong and Cobbina, 2010; Taylor, 2015), 기타(친구 혹은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Bales and Mears, 2008; Vries and Liem, 2011) 등과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출소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혼을 경험한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그리고 친구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그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낮을수록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전제는 ‘갱생보호사업은 두 번째 전제에서 세 번째 전제로의 과정에서 출소자를 보호함으로써 재범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갱생보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① 숙식제공 ② 주거

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출소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들은 전술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요소들인 취업과 가족관계 회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동훈·김시형·권은비·서현정(2019)의 연구에서는 보호사업의 일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사업 중 숙식지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이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식지원을 받지 않는 출소자일수록,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참여한 출소자일수록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사업이 출소자의 사회적 복귀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보호사업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주거지원 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거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지침의 제1장 제1조 “이 지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절차와 주택을 지원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통해 주거지원 사업이 전술한 네 번째 전제처럼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5년 14명의 출소자를 첫 시작으로 2006년에는 133명, 2007년에는 152명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 최근 2018년에는 약 200여 명이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는 전체 3,063명이었다. 최근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4.7%인데 비해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3%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방법론상 한계²⁾가 존재하지만, 수치상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약 8배 가까이 낮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거지원이 출소자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2) 우선, 주거지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않은 출소자와는 자립 의지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지침 제7조 “제1항 자립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책임이 있는 세대주로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 지부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부 등 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를 선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평가표를 보더라도, 수형생활 기간, 출소 후 기간, 위험성 평가결과 등이 선정 평가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에는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인 특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이미 집단 간에 결과(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변수)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두 집단의 결과(재범) 차이는 어떠한 처치(주거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첫 번째로, 주택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심리적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킨다(Lee et al., 2010). 또한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내 관리(감독)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거주할 곳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에의 노출, 반사회적인 사람과의 접촉 등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utze and Rosky, 2014). 두 번째로, 사회통제 이론의 관점에서 가족과의 강한 애착은 사회적 유대요소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영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또한 배우자 혹은 아이들과의 강한 유대관계는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aub et al., 1998; Uggen, Wakefield and Western, 2005).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출소 이후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유대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거지원과 재범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Bruce, Crowley and Jeffcote, 2014; Kirk et al., 2018)의 분석결과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노숙상태의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재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범여부 혹은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크게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을 검증해 왔다. 우선,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위험한 행동 그리고 전과경험 등이 고려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남성(정유희·손외철, 2017), 낮은 연령(이정민·조운오, 2017; 정유희·손외철, 2017; 조운오, 2016), 낮은 교육 수준(Wooldredge and Thistlethwaite, 2002) 최초 입건의 낮은 연령(노일석, 2009; 정유희·손외철, 2017), 높은 과거범죄경력(이동원, 2003; 이진구·강정석, 2018; 정유희·손외철, 2017; 조운오, 2016) 혹은 과거보호관찰경험(이정민·조운오, 2017), 문신(이정민·조운오, 2017), 높은 음주 빈도와 마약 사용(Romero-Martinez et al., 2019), 높은 공격성(김현수·김현실, 2001)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과 사회적 관계는 개인을 둘러싸고(nested)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 혹은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요인들을 의미한다. 해당 요인들은 주요 범죄학 이론에 근거하여 재범을 설명한다. 온전하지 않은 가족형태(노일석, 2009), 이혼경험(이현희, 2004; 이진구·강정석, 2018), 부모와 자녀의 관계(김현수·김현실, 2001; 노혜선·이수정·장유미, 2018), 무직(Feder and Dugan, 2002; 조운오, 2016; 이진구·강정석, 2018), 좋지 않은 환경에 의 거주(Fitzgerald and Graham, 2016) 등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ontaine, Gilchrist-Scott, Roman. Taxy and Roman(2012)은 미국 오하이오(Ohio)에서 이루어진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의 재범 요인 및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과(이전 구금 횟수)가 많을수

록 수형기간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없을수록 재범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별과 음주습관 등의 요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실시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연구(Visher, 2004)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전과횟수가 많을수록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약 사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원을 포함한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가 출소 직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해줌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현재 국내의 출소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15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도 약 3,000여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기존의 재범 위험 요인들을 투입하여 주거지원 출소자의 재범 위험기간과 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대상)

본 연구의 자료에는 2005년 11월에 제정된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출소자부터 2020년 7월에 지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 시점부터 2020년 7월까지 시행한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질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의 특성, 지원에서 이탈하는 유형 그리고 이들의 재범률 혹은 재범위험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에는 1993년에 출소한 대상자부터 2022년 출소예정인 대상자까지 모두 3,227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주거사업 지원 대상자’ 자료로 대상자 한 명이 처음 지원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건으로 처리된다. 본 연구는 주거지원 기간 내 어떠한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의 분석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① 지원사업 시작일이 2020년 7월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 ② 지원사업 시작일이 지원사업 종료일보다 더 늦게 표기되어 있는 대상자, ③ 지원사업 시작일과 지원사업 종료일의 시점이 같은 대상자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교도소 내에서 복역 중이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 유형은 현실적으로 지원사업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더 늦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지원사업의 시

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기간이 0으로 지원의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부분 입주포기로 확인됨). 결과적으로 3,227명 중 78명을 제외하고 3,149명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 지원 시작시점부터 재법으로 인한 지원 종료시점까지의 기간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년 내지 3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법을 저지른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재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이정민·조운오, 2016; 이형재·김병배, 2018). 그러나 한영선 외 3명(2019)은 재범여부가 아닌 재범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과 생존분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분석의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된 시점이 모두 달라서 연구기간 중에 일찍 등록된 사람과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거의 다다라서 등록된 사람 간에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등록된 기간)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률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등록 시점이 다르더라도 오랫동안 등록된 사람은 긴 기간을 고려하고 최근에 등록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짧은 등록 기간을 고려하여 재법에 미치는 요인들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생존분석이 필요하다”(한영선 외 3명, 2019: 95).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재법기간의 계산에 차이가 있다. 한영선 외 3명(2019)은 신상정보등록·고지제도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출소 직후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등록시점부터 재법으로 인하여 체포된 날짜까지의 기간을 재법기간으로 계산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경우 주거지원 기간 중의 재법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원시작 시점부터 재법으로 인한 지원종

3)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주거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주거지원사업 관리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제12조(퇴거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데이터 추출 시기인 2020년 9월 현재에는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 지원종료일이 연구의 시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지원종료일을 2020년 9월 7일(데이터 추출 시점)로 산정하여 중도절단 케이스로 정의함으로써 생존분석에 투입하였다(중도절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분석방법에 후술).

4) 분석자료에는 지원 중에 사망하여 지원에서 이탈된 대상자도 존재한다. 이 경우 다른 대상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여 지원에서 이탈한 연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산출하였다.

5) 예를 들어, 비행률 종속변수로 중단분석을 실시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패널데이터(KYPS)',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YPS)'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이완희·황성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김준호·정혜원, 2009), 종단다층모형(하아영·조한익, 2020)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1차년도부터 n차년도까지 모두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만이 분석에 투입되며,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조사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6) <그림 1>의 [4]와 [5]는 Truncation(절단) 유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료 시점을 재법기간(지원기간 내 재법)으로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거지원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데이터 추출 시기인 2020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을 산출하였다.³⁾ 이와 같이 계산된 재법기간의 단위는 '일'로 분석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아래의 <표 1>은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등록기간과 지원기간 내 재법자의 등록기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이다. 전체 3,149명의 대상자 중 지원포기 혹은 본인희망으로 인하여 최소 1일 만에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부터 지원시작 후 지속적으로 재심사에 통과하여 최대 5,260일 동안 지원을 받은 대상자도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는 1,695.67일(SD=1,225.13) 동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 내 재법을 저지른 87명(전체 중 2.7%)의 경우 지원시작 후 최소 57일 만에 재법으로 인하여 주거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부터 최대 3,520일까지 지원을 받다가 재법을 저지른 대상자도 존재하였다. 지원기간 내 재법자의 평균 지원기간은 905.36일(SD=710.94)로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평균보다 약 1/2정도 낮았다.

<표 1> 주거지원 사업 대상 출소자의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내 재범까지의 기간

	N	평균(일)	표준편차	최소일수	최대일수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	3,149	1,695.67	1,225.13	1	5,260
지원기간 내 재범자	87	905.36	710.94	57	3,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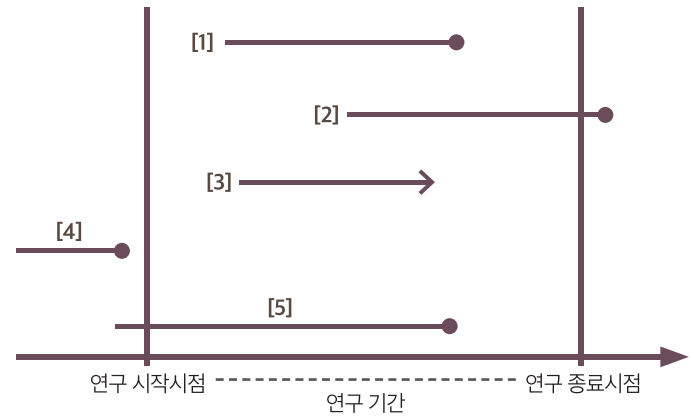
지원기간 내 재법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2범 이상의 전과여부 및 최근 저지른 범죄의 유형과 같은 형사사법기관 처분경험 변수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dummy)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원자료에서 주어진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데이터 추출시점(2020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였다.⁴⁾ 건강상태는 지병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는 '0', 지병 등이 없이 양호한 경우는 '1'로 더미코딩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이하', '3=고등학교 졸업 이하', '4=전문대(2년제) 졸업 이하', '5=대학교 재학 이상'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처분경험 변수 중 2범 이상의 전과여부는 '0=초범', '1=2범 이상'과 같이 코딩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강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폭력, 횡령, 사기, 향정(마약류), 교통특례법 위반, 기타와 같이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 방법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생존시간(survival time)을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생존분석에서는 완전하게 관측된 생존시간(시작시점과 사건발생 시점이 연구 기간 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외에 중도절단(censoring)된 자료를 포함되는데, 이는 연구 기간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의 생존시간

을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이승연, 2018). 결과적으로 중도절단된 자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모형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타 종단분석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⁵⁾ 이와 같이 생존분석은 분석하는 자료에서 정보의 손실이 전혀 없으면서 연구자 마음대로 특정한 경우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자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의 결과로 신뢰성이 높다(은기수, 2001: 108-109). 다만, 연구의 관심사(사건)를 명확히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시점을 적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사건과 중도절단 자료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건의 생존시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중도절단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은 연구의 관심사(사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는 관찰기간 중 사건과는 무관하게(독립적으로) 어떠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의 위험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1]은 연구시작시점 이후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연구 종료시점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생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유형'이다(Babe-Hesketh and Skron dal, 2012). [2]는 대표적인 중도절단의 유형(type I censoring)으로 연구 기간 중에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을 관측할 수 있으나, 연구 종료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생존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유형이다. [3]은 [1], [2]와 같이 개별 케이스의 시작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떠한 상황(사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의 발생 혹은 위험을 측정할 수 없는 유형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중도절단의 유형(independent censoring)이다.⁶⁾



<그림 1> 중도절단의 유형(Babe-Hesketh and Skron dal, 2012: 재구성)

이러한 자료의 유형들을 본 연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거지원 중 재법 기간(생존시간)과 중도절단 자료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시작시점은 주거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2005년이며, 연구의 종

7) 생존함수 S(t)와 위험함수 h(t)에 대한 추정 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be-Hesketh와 Skron dal(2012), Cleves와 동료들(2010), 이승연(2018) 그리고 한영선 외 3명(2019)을 참조

료시점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된 2020년 9월 7일이다. 재법은 본 연구의 관심사건으로 주거지원 기간 중 재법으로 인하여 지원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일(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시작일)과 종료일(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종료일; 사건발생일)을 연구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그림 1>의 [1]의 유형에 해당하며, [종료일-시작일]이 연구의 생존시간이 된다. 지원지속의 경우 연구의 시작시점 내에서 주거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연구 종료시점까지 사건과 사건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 모두 발생하지 않아 연구 종료시점을 초과하여 생존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그림 1>의 [2]의 유형에 속하며, 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종료일을 일괄적으로 데이터 추출 시점(2020년 9월 7일)로 부여함으로써 중도절단 자료로 분석에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사망 등은 주거지원 시작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구기간 중 사건(본 연구에서는 재법으로 인한 지원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종료(만료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이탈)하여 더 이상 지원 기간 내 재법으로 인한 지원 이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1>의 [3]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중도절단 자료로서 분석에 포함한다.

<표 2> 종속변수와 중도절단 자료 유형에 대한 설명

구분	시작시점	종료시점	유형
재법	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시작일	개별 케이스의 주거지원 종료일	[1]
사망			[3]
취업이사			
주택마련			
기간만료			
본인희망			
자립			
교육수료			
강제퇴거			
무단퇴거			
연락두절	데이터 추출 시점	[2]	
보호전환			
입주포기			
지원지속			

본 연구는 <표 2>과 같이 생존시간을 '일' 단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 시간의 단위가 충분히 작게 설정되어 생존기간이 겹치는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한영선 외 3명, 2019)에 적용할 수 있는 연속시간 생존분석 방법(continuous-time 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속시간 생존분석에는 다양한 추정방식이 있는데, 지수(Lognormal or Logistic), 와이불(Weibull), 고펜퍼츠(Gompertz)와 같이 모수(parametric)추정방식을 사용하는 모형의 경우 기본 위험 함수인 h0(t)가 상수라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Cleves, Gutierrez, Gould and Marchenko, 2010). 그러나 각 기간 구간마다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한영선 외 3명,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유로운 반모수(semiparametric)적 분석방법인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거지원 기간 중 재법으로 인한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⁷⁾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실태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월 2일과 13일에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실태 등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방문한 서울구치소에서는 연휴기간 수용관리 실태 및 과밀수용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영희 교정보부장은 지난 2월 6일과 7일, 13일에 각각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기관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안양교도소에서는 연휴기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시설 관리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코로나19 대응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시달

교정보부는 지난 2월 2일 방역 및 확진(의심)자 격리수용동 근무 등 현장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생활치료센터 2개 기관 및 기타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계호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수당 등 지급, 성과상여금 우대, 고충 정보 및 근무성적 평가 등 인사상 우대, 자긍심 강화를 위한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품 전달



지난 2월 5일 신경우 법무부 교정정책담당장 등 5명이 설날을 맞아 의왕시 소재 명륜보육원과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아동을 위한 위로금, 생필품 및 다과류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교정보부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감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교정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으로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2월 15일부터 조정(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집견, 운동, 목욕 등의 처우가 재개됐으며,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등의 처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수용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 검사조사 등 사법절차를 정상화했다.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홍비
서울지방교정청 영상회의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24일 청장이 주재하고 소속 기관 및 소망교도소 기관장 전원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정사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소속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제시한 대안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법무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2월 1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 차관은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마스크 및 의약품 등 방역 물품을 점검했다. 또한 과일 수용 해소를 위한 여성 수용동 증축, 수용자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2월 13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황을 점검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확진자 발생 대비 준비 사항 및 대응 계획, 방역 물품 보유 현황 등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설날에도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2월 8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규 9급 공채 직원 8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

다. 김명철 소장은 새내기 직원의 임용을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멋진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최재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12일 설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후원금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후원금은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기금으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설날을 맞아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교화·종교 분과위원회 설맞이 기부 금품 기증

인천구치소 교화 분과위원회 및 종교 분과위원회는 2월 9일 설을 맞아 한라봉 2,300개, 사과 2,100개, 절편 2,300인분 등을 기증했다. 인천구치소는 이를 설날 당일 수용자들에게 배식했으며, 각 기부처에는 소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협의회 및 관련 기관 설맞이 기부 금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2월 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백설기 2,100개와 꿀 4,200개를, 2월 10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호박설기 2,100개를 기증받아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또 2월 4일과 10일에는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보관금 각각 100만 원, 135만 원을 기부받아 불우 수용자에게 지원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설날 사랑의 떡 기증 행사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9일과 10일 교화 분과위원회와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설날 사랑의 떡 기증 행사’를 열었다. 조승근 교정협의회장은 “사랑의 떡에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바라는 교정협의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해 2월 8일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불우 수용자 10명에게도 영치금을 전하는 등 총 2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해당 성금은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기금과 민원인의 기금으로 마련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2월 8일 신규 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남준락 소장은 임용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교도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금을 기억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응원한다”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10일 설날을 맞아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행복한 집, 에델마을, 그리고 결연을 맺은 7개 취약 가정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만큼 전화 통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춘천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해 2월 5일 애민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은 춘천교도소 직원들이 정성껏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춘천교도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아낌없는 나눔과 사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원주교도소는 설날을 맞아 2월 9일 원주시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과 최왕업 토마스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 온누리 상품권 등 위문 금품을 전달했다. 위문 금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원주교도소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강릉교도소는 2월 4일 설날을 맞이해 강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시설 4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박종관 소장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공직자 설날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

영월교도소는 설날을 맞아 2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과 의료진을 돕기 위해 ‘공직자 설날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월교도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강원북부교도소는 2월 9일 지방분권2.0 시대 개

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손용대 소장은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정행정 구현으로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월 8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임용 직원에게는 임용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박진성 지소장은 “교정공무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의미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정은혜
소망이야기 공모전 실시

소망교도소는 2월 2일부터 일주일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소망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 결과 문학 부문과 그림 부문에서 각 5명이 선정됐다. 선정작은 소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설날을 맞아 2월 9일 청사 청소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위해 대구지방보훈청에 위문금을 위탁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에도 생필품과 위문금을 보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대구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해 2월 10일과 15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 가정 학생 등 9곳에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 나눔 동아리 ‘대교회망지킴이’가 모은 것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2월 8일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정성스레 모은 성금 200만 원을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 아재활원과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에바다 보육원, 새 생명 지역아동센터 등 부산 일원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영식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교정협의회 및 인천부평감리교회 설맞이 기부금품 기증

2월 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인천부평감리교회 손웅석 목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자를 위한 떡 1,300개와 사과 1,300개를 각각 기부했다. 김동환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호
교정위원 불우 수용자 지원금 기증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윤규(치과원장) 위원은 2월 2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기부

금 증서(1,000만 원)를 전달했다. 이에 오세홍 소장은 “불우 수용자를 적극 지원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직원 격려 특식 마련

부산교도소는 2월 1일 지난 1년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직원을 위해 특별 메뉴 랍스타를 제공했다. 랍스타는 새로 부임한 김도형 소장이 코로나19 제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전 직원을 치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 김도형 소장은 매식비 외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기관장 업무 추진비로 충당하며 그 뜻을 더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해 2월 10일 학천2리 마을 회관과 지역 내 복지시설인 들꽃마을, 소외된 이웃 5명 및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등을 방문해 총 31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진주교도소 '나눔미봉사단'은 2월 9일 설날을 맞이해 진주시 대곡면사무소에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받은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0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나눔미봉사단은 이 외에 진주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 금품을 기부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직원 격려품 지급

대구구치소는 설날을 앞둔 2월 8일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행정 지원 인력 등에게 생활용품 세트 등 격려품을 지급했다. 이번 격려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급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코로나19 방역 전문가 초빙 직장교육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월 17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를 초빙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된 청송 보건의료원 김미경 외부 강사는 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의 실습을 진행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2월 9일 설날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인 창원소망원과 기관 소재지인 상리3리 마을회관 및 관내 취약 계층 3명에게 7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비대면 계좌 송금으로 진행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9일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를 수용한 지 44일 차에 남아 있던 185명을 이송함에 따라 '제한적 임시 생활치료센터' 지정에서 해제됐다. 최진규 소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마침내 이렇게 보란 듯이 극복해 냈다. 훌륭한 성과를 일궈 낸 직원 모두를 한없이 존경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2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 한마음지역아동센터, 행복한요양원 등 3개 시설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위문품 전

달은 기탁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5일 진보면에 소재한 결손가정 등 지역 주민 5가구를 선정해 설맞이 위문금을 전달했다. 해당 위문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되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2021년 진로멘토단 참여

울산구치소는 2월 16일 직원교육실에서 울주군 진로직업체험처가 주최한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울주군 내 직업체험처 진로멘토(교정, 경찰 등)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다른 진로 멘토들과 진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2월 2~3일 설날을 맞이해 경주시 내 남면 용장4리 마을 회관 및 소외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솔선해 지역 내 소외 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교정협의회 KF94마스크 기증

통영구치소는 2월 9일에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목원 스님으로부터 KF94 마스크 2,000장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도 한승훈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밀양구치소는 2월 2일 설날을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쌀, 두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변 환경 정리 등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매일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 봉사 활동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2월 2일 설날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인 희망재활원과 노인회관 및 이웃 주민을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전달했다. 안영삼 소장은 “마을 어른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성구

전입 직원 확대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8일 전입 직원들에 대한 확대 행사를 개최했다. 김진구 청장은 전입 직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일선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설맞이 수용자 합동 차례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12일 설맞이 수용자 합동 차례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차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접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취하고자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청주교도소는 2월 8일 설날을 맞아 서원구 현도면의 소망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 총 10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금은 '희심길 봉사단' 모금 회비와 청주교도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모은 재원으로 마련됐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직원 격려 커피 나눔 행사 개최

천안교도소는 2월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격려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 직원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포토 존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신규 및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8일 신규 및 승진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직원은 7명, 교위 승진자는 7명, 교사 승진자는 15명이다. 서수원 소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뚜렷한 목표 설정을 통한 자기 계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서로 간의 소통과 단합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2월 1일 신규 직원인 무기계약직 방호원 1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문태 소장은 축하 환영식을 통해 신규 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직원 식당 코로나19 방역 체온 측정기 및 자동 소독기 설치

충주구치소는 2월 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식당에 체온 측정기 및 자동 소독기를 설치했다. 직원들은 직원 식당 출입 시 자발적으로 체온을 체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조경환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2월 8일 교위, 교사 승진 직원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장 및 각 과장 등 동료 직원들은 승진 직원에게 덕담을 건넸다. 김진석 소장은 “계급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교정 공무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문 및 성금 전달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4일 천안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함으로,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꾸준히 위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민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2월 9일 설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 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한 위로 금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인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후원하는 등 따뜻한 사랑 나눔을 이룰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 교도 손준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는 2월 8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직원 3명은 임용 신고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교도소 시보 공민성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노산지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설을 맞아 2월 8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의 집과 아동보육원 애육원에 비대면으로 각각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교정청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이웃 사랑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재석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2월 10일 설을 맞이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해맑은 그룹홈, 나눔과 행복에 각각 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고려중학교 학생 3명에게는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위문금과 장학금을 마련하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쳐가고 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설을 앞둔 2월 4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생활 지원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봉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위문금과 위문품만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2월 9일 설날을 맞아 1사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

문금 120만 원을 비대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전달했다. 박병일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광현국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 사과 기증

목포교도소는 2월 5일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로부터 사과 80박스를 기증받았다. 정봉수 소장은 “설날을 맞아 수용 생활로 소외감을 느낄 수용자들을 위해 과일을 후원해 주어 감사하다. 이번 과일 기부로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스한 마음과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대우

대체복무요원 복무 시작

2월 5일부터 군산교도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군산교도소 내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며 9곳의 시설에서 구내·외 시설 유지, 운영 지원 업무, 간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 초빙 직장교육

제주교도소는 2월 16일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요령 습득을 위해 외부 방역 전문가를 초빙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이론과 개인 보호복(레벨 D) 착용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제주교도소는 앞으로도 격주 1회 외부 전문가 초빙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KF94 마스크 기증

장흥교도소는 2월 22일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KF94 마스크 3,000장을 기증받았다. 박진홍 소장은 “기증된 마스크를 전체 수용자에게 지급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설날 지역사회 위문 활동 실시

해남교도소는 2월 8~10일 해남 등대원과 소망의 집, 겨자씨공동체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마을인 영안마을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위문금을 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정읍교도소는 2월 4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과 방역 관리 자가 진단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를 했다. 정읍교도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및 자문위원단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안양교도소 교감 **김주영**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수용 생활 적응 및 교정교화에 기여

김주영 교감은 현재 보안과 야간 기동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 수용동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용동 담당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교정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조직 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해 수용 생활로 인한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평소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안동교도소 교사 **김정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김정학 교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자로 나섰다. 그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에서 성실히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또한 김정학 교사는 평소에도 수용자 출원 사항 접수 및 처리, 근무 상황 등 직원 복무 관리, 재판 서류 확인 등 철저한 보안 행정 업무를 수행해 교정행정 발전에 힘쓰고 있다.



충주구치소 교위 **주홍식**

반입 금지 물품 차단 및 교정사고 예방 기여

주홍식 교위는 사회복귀과 도서 업무 담당자로, 도서·신문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정교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의 교정시설 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 도서 물품 교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기동순찰팀 근무 시에는 신속 정확한 대처로 접견실에서 기물 파손 및 소란 행위를 하는 수용자 등을 진압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해남교도소 교위 **전종하**

수용 질서 확립 및 수용자 코로나19 예방 조치 참여 독려

전종하 교위는 수용1팀 생활지도 담당 직원으로, 기피 근무 개소에 자원해 미지정 수용동의 수용 질서를 확립해 왔다. 또한 수시 심층 상담 및 생활지도로 규율 위반자와 미취업자가 수용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020년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수용자 운동 등 각종 처우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했다.



**확대 사진
맞추기**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합니다. 아래 3개의 사진은 3월호에 실린 사진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월간 <교정>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느 코너에 실린 사진인지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춰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코너명 :



코너명 :



코너명 :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교정공무원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월간 <교정> '대나무숲 일기'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투고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시, 수필, 그림(서예 등) 등 분야에 상관없이 대모집 중!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